

# GS건설 컨소시엄 싱가포르 철도시험센터 공사 수주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공사만 9번째...파트너십 강화



1, 2 싱가포르 ITTC 조감도 3 오송철도시험센터



GS건설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나희승 원장)과 민관 협력으로 싱가포르 철도종합시험센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로써 싱가포르에서 지하철 및 철도 노선 구간뿐 아니라 주요 인프라인 철도차량 기지와 철도시험센터까지 모두 GS건설의 힘으로 건설하게 됐다. GS건설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발주한 약 5천500억원(6억3천950만싱가포르달러) 규모의 철도종합시험센터 ITTC(Integrated Train Testing Centre) 프로젝트를 지난달 수주했다. 이번 공사는 싱가포르 중심지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부지에 총 3개의 테스트 트랙을 설치해 차량·신호·통신·철도 용품을 시운전할 수 있는 철도종합시험센터를 짓는 공사로, 2024년 말 준공 예정이다.

철도종합시험센터는 세계적으로도 6개 밖에 없는 고난도 시설로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제대로 준공할 수 있는 신뢰성이 결정적 기준이었다. 입찰 자격도 한국과 호주 두 컨소시엄에만 허용했다.

GS건설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입찰 가격이 경쟁사보다 높았지만, 창의적인 설계와 책임 준공 역량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국내 첫 철도시험 전용 센터인 오송철도종합시험센터를 시공·운영해 온 것이 큰 힘이 됐다.

GS건설이 건설한 충북 오송 철도종합시험센터는 최고시속 25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차량, 궤도, 노반, 전차선, 신호·통신 등 국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성능 실험을 할 수 있다.

오송 철도종합시험센터 운용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이번 수주를 위해 오송 시험선의 기획·기본설계·운영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지 관리가 용이한 시험 센터 계획을 기술적으로 지원했다. 또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요청으로 향후 완공 시

까지 연구원을 현지에 파견, 상주시킬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GS건설이 시공 중인 싱가포르의 철도차량기지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술 뒷받침으로 적기에 책임 준공될 것이라는 싱가포르 당국의 기대와 신뢰감이 높아진 것도 수주에 큰 도움이 됐다고 보고 있다.

GS건설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싱가포르 LTA 공사만 9건, 총 4조3천억원에 달하는 누적액을 기록하며 싱가포르 LTA와 신뢰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당사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협업을 통해 해외철도경쟁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수주의 모범 사례”라며 “오송 철도시험선로에서 얻은 설계와 시공 경험을 싱가포르에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